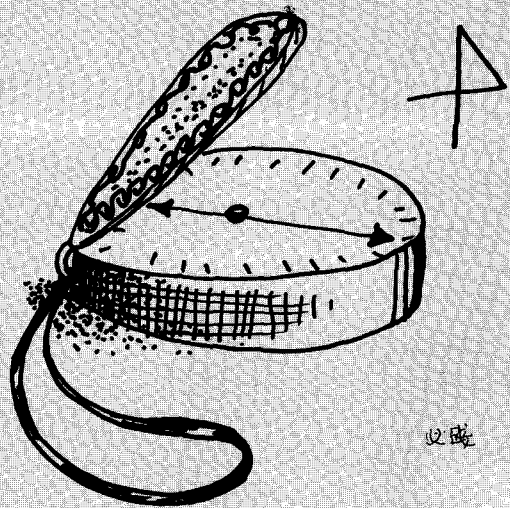


개보수공사부터 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활성화를-!

우리나라에 근대적 개념의 설비가 도입된 것은 지난 6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로 70-80년대의 해외건설붐을 타고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지금의 설비는 건축물에 생명을 주는 심장이나 혈관과 같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공법, 신소재 및 장비류등을 활용하여 명실상부하게 설비의 하이 테크화를 실현해 가고 있는 중이다. 건축구조물의 평균 수명 50년에 비하여 배관설비의 수명은 보통 10-15년으로 지금까지 신축에만 전력 투구하는 건설업계가 이제는 기존설비부문에 개보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왔으며 이에 따른 노후화된 기존건물에 대한 설비부분 개보수공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물량이 많아지며, 이에 대한 발주자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시공질 확보와 저렴한 공사비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설비 개보수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설비공사업자에게 원도급 시공토록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시공질 확보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자는 분리 발주를 잘못 인식하여 설비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별도의 독립된 공종공사로 잘못 판단하여 일반공사로 발주함으로써 실질적인 하자책임 소재의 불분명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설비

전문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받음으로서 낮은 공사비 책정을 받아야 하는 고충을 설비공사업계에서도 감수하여야 하는 이중적 불합리성이 도출되는 경우도 때론있다. 따라서 전문적 시공기술을 요하는 설비 개보수공사부터 활성화하여 설비전문업자에게 분리 발주하여 원도급 시공케함으로서 발주자의 시공질 확보 용이성과 설비전문업체의 기술집약적 시공도모 및 하자 책임 소재의 일원화를 기할수 있으며, 향후 세계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설비 전문기술 배양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재